



루마니아

IMF 대기성차관 최종분 집행 결정

IMF, 대기성차관 마지막 4차분 집행을 결정

IMF는 대기성차관의 마지막 회차인 4회차 인출분 1억 5,300만 달러의 집행을 위한 경제실적 검토를 완결하고 집행을 결정했다. IMF는 금년 상반기 중 루마니아 경제 성장률이 양호하고, 물가상승률도 연초에 예상했던 수준보다 크게 낮아지고 있으며, 재정정책도 IMF의 권고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전반적인 경제실적이 대체로 양호하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IMF는 수출증가율 둔화, 급격한 임금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등의 문제점과 수입에너지의 가격상승으로 에너지부문의 누적적자가 확대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지적하였다.

IMF는 다수의 대형 에너지기업이 성공적으로 민영화되었고, 국영은행인 Banca Comerciala Romana(BCR) 매각도 진행

되고 있는 반면, 남은 에너지 기업의 민영화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IMF는 향후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루마니아 정부가 국영 에너지기업 민영화에 보다 박차를 가하는 한편, 임금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권고를 하고 있다.

종합재정적자, IMF의 권고목표 달성 가능할 듯

금년 상반기 중 재정수입은 260조 1,620억 레이(상반기 GDP의 35.3%), 재정지출은 274조 9,260억 레이(상반기 GDP의 37.3%)를 기록하여, 종합재정수지¹⁾ 적자는 14조 7,640억 레이(Lei)로 상반기 GDP의 2%, 금년 추정GDP의 0.8%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루마니아 정부는 금년도에 종합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2.65% 이내로 억제하는 IMF의 권고목

1) 중앙정부 재정, 사회보장기금, 지방정부 재정, 추가재정기금(extrabudgetary fund) 등을 포함.

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EIU는 Cernavoda 발전소 폐쇄와 가뭄으로 인한 수력발전량 감소로 인해 발전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8,500~9,000만 달러의 추가 재정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종합재정수지 적자도 IMF 권고목표를 다소 벗어난 2.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CR 민영화 1단계 완결

금년 9월 26일에 EBRD와 IFC가 BCR 지분 25% 및 2주를 인수하기 위해 2억 2,200만 유로와 2003년 인수예정 지분에서 발생하는 배당액을 제공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BCR 민영화의 1단계가 완결되었다. 이에 따라 EBRD와 IFC는 각각 지분 12.5% 및 1주씩을 보유하게 되고 지분에 비례한 의결권도 보유하게 될 예정²⁾이다.

작년에 두 번에 걸친 BCR의 민영화 시도가 모두 실패한 이후 IMF는 루마니아 정부에 BCR의 민영화를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이에 루마니아 정부는 금년 6월에

새로운 민영화 계획을 제출하였다. 이 계획은 BCR의 임직원 및 퇴직 임직원으로 구성된 근로자협회와의 직접 협상을 통해 8%의 지분을 동 협회에 매각하고, 잔여 지분은 주요 국제금융기구나 이들 기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등의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한다는 것이었다.

Petrom 민영화 추진 중

금년 8월 발표된 Petrom³⁾의 민영화 계획에 따르면 루마니아 정부는 정보보유 지분 93%⁴⁾중 33.34%를 전략적 투자자⁵⁾에게 직접 매각한 뒤, 증자를 통하여 인수자가 최종적으로 51%의 지분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Petrom³⁾의 근로자 협회에도 10%의 지분을 매각할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동국 정부가 9월 19일까지 입찰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미국, 유럽, 러시아 등 15개 대형 석유회사 또는 컨소시엄이 의향서를 제출하였다.⁶⁾ 루마니아 정부는 내년 3월까지 Petrom³⁾의 민영화 절차를 모두 끝낼 예정이었으나

2) 이에 대주주이자 루마니아 민영화 기관인 APAPS는 지분이 44.8%로 감소하게 됨.

3) Petrom³⁾의 개요

- 종업원 : 6만 명

- 자산현황(2002년 말): 800만 톤 용량의 정유공장 2개, 1억 2,800만 톤의 원유저장소, 1,012억 5,500만 입방미터의 가스 저장소, 695개의 석유 판매소 등 보유 (루마니아 석유 유통시장의 50~55% 점유)

- 영업현황(2002년 중) : 매출액 22억 달러, 순이익 1억 100만 달러

4) 7%는 부쿠레슈티(Bucharest)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음.

5) 전략적 투자자는 최근 3년간 석유 및 가스 사업에서 연 10억 달러 이상 수입을 실현한 단일 기업이나, 연 13억 달러의 수입을 실현하고 석유 및 가스 산업분야의 경영 및 기술 전문가를 보유한 최대 4개 기업의 컨소시엄을 말함.

6) Halliburton(미), Regal Petroleum PLC(미), Tender(루마니아), TNK(러)·BP(영) 컨소시엄, PKN Orlen(폴란드), MOL(헝가리), OMV(오스트리아), Gazprom(러), Glencore(영), Occidental Oil and Gas Holding Corporation(미), Alon(미), Conoco Phillips(영), ENI(이태리), Hellenic Petroleum(그리스), Phonix Oil(키프러스) 등임.

추진 일정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IMF는 루마니아 정부의 구상과 달리 전략적 투자자에게 Petrom社 지분의 51%를 즉시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정부재정으로 편입토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로 33.34%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6억~8억 달러가 유입되는데 반해, 51%의 정부지분을 매각하면 3.5억~5억

달러가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World Bank는 IMF 권고안이 즉각적인 재정보호 측면에서는 유리하겠으나, 민영화 이후 기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루마니아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이 보다 바람직하다며 루마니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권 유 철】